



NH농협생명보험 연도대상



지난해 열린 정기대의원회



조합원 선진지 견학

농업인 조합원이 주인입니다

상호금융대상 H그를 전국 1위... 상위권으로 성장

제13대 무주농협협동조합장으로 취임한 곽동열 조합장은 그동안 무주농협이 추진했던 사업들이 하나씩 결실을 맺기 위해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 무주농협이 2017년 농협사업의 결산 보고서를 내놓았다. 지난 1년간 지도사업, 신용사업, 경제사업, 기타사업 등 각종 사업의 추진에 대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 괄목할 만큼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곽동열 무주조합장은 "노후화된 안성지점 신속으로 안성 조합원님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농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남지점 주유소와 마당복개공사를 완료해 부남지점 숙원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7년 무주농협 업적을 보면 농협중앙회에서 평가하는 상호금융대상 H그를 전국 1위, 전국종합업적평가 4위안에 드는 농협으로 성장했다"며 "전북 농협에서 평가하는 지점별 그룹 업적평가에서 적상지점 1위, 부남지점 1위, 안성지점이 2위를 달성, 2018년에는 전 부문 1위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곽동열 조합장이 취임한 이후 무주농협은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조직 등 구조조정을 통해 성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하는 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곽동열 조합장

▲지도사업(교육지원사업)

농업인의 농업정보 수집 및 농업기술 향상을 위해 농민신문, 디지털농업, 전원생활 등 간행물대금을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조합원의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비부담 절감을 위해 30명을 선정, 각각 100만원씩 삼천만원을 지원했다.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인 영농도움미(67명, 4,000만원)사업과 행복나눔이(107개 경로당 청소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8월에는 무주케이트볼전용구장에서 관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제5회 무주조합장기 케이트볼대회를 개최해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대회를 마쳤다.

10월에는 임원 및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농협 정체성확립과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농협안성교육원,농협중앙센터)하고, 여성농업인을 위해 12월부터 총 9차(12월 5회 기실시, 2018년 1월 4회 예정)에 걸친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회 15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

▲신용사업(수신, 여신, 보험)

2017년도말 예수금 평잔은 1,568억원으로 전년 대비 90억원 증가했다. (예수금 잔액 : 1,595억원) 이 중 1,096억원(전년 대비 454억원 증가)은 농업자금 및 기계자금으로 대출 지원하고, 농협중앙회 차입금 등을 포함한 458억원(전년 대비 378억원 감소)은 농협중앙회에 예치했다.

예대비율이 지난해 보다 올랐지만 69.91%(금감원기준 70.27%)로 상호금융대출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상호금융대출 금전적성연체비율은 0.69%(전년 대비 0.25%p 증가)로, 대출금잔액 1,266억원 중 연체채권이 871백만원에 불과해 대출금이 건전한 상태이며, 신용대손충당금은 22.7억원을 적립하여 대손충당금비율 102.71%를 유지하고 있다.

대손충당금비율이 급격하게 감소한 이유는 대손충당금 적립률의 상승과 신규대출금의 급증으로 인한 정상채권과 유주의채권에 대한 요적립액의 증가가 주요이다. 농업인들의 농작업 관련 사고에 대비해 농업인안전보험을 연초부터 전 영농회, 전 농업인을 대상으로 집중 추진해 4,239건을 가입하였고, 농작업사고에 의한 보험금으로 192건, 4억4,200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농작물의 재해피해 시 보전을 목적으로 한 농작물재해보험은 639건이 가입되어, 31건, 3,900만원을 지급했으며, 생명보험(농업인안전보험 제외)은 262건이 신규 가입 했고, 124건, 2억4,000만원의 보험금을



무주 천마

지급, 손해보험(농작물재해보험 제외)은 2,574건이 신규 가입했고, 126건, 2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경제사업 (구매, 판매, 마트)

농업인조합원과 고객편익을 위해 신속한 영농자재 공급을 실현해 구매사업 106억원(비율 35억원, 농약 12억원, 일반자재 28억원, 유류 25억원, 가스 4억원, 사료 2억원), 마트사업 152억원, 판매사업 168억원, 가공사업 13억원을 달성했다. 무주APC와 안성 APC조합에서 지속적으로 농산물을 집하해 부산, 광주, 호남, 대전, 서울청과 등으로 출하하고, 약 23억원의 출하실적을 올렸으며, 조합원들의 실익을 위해 퇴비, 과일, 보험 등에 296,100만원의 실익지원을 했다.

친환경유통사업단 자원화센터에서는 양질의 1등급 가축분퇴비(펠릿형 포함)를 생산해 공급함으로써, 관내 농지의 지력향상에 일조하고, 7~8월에는 관내 600ha의 농지에 무인항공방제를 실시했다.

▲기타사업

전 직원이 자기자본 증대를 위해 적극 추진한 결과 지난해 출자금 3억8,200만원 증가했고, 연도말잔액이 108억원을 달성했

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출자금액은 250만원으로, 구전동농협 289만원, 전국평균 458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앞으로도 자기자본 증대를 위한 조합원들의 관심이 절실하다.

2017년도말 총자본비율은 12.19%로 예상되고 있고, 순자본비율은 8.08%로 예상되고 있어 금융감독원에서 요구하는 비율(순자본비율 5%)을 초과하는 상태다. 농축산물 판매 및 유통사업 활성화로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실익증대를 위해 구전동농협과 공동으로 설립해 5주년을 맞은 무주반딧불조합 공동 사업 법인이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지립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올해 통합마케팅 상품개발비용으로 2억 1,400만원의 실익지원을 했다.

지난해 보다 순이익이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신규대출금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제비용(대손충당금 등)의 증가 때문이다. 당기 순이익은 감소했지만 지난해와 같은 출자배당(3%)을 하고 있다. 2018년도에도 무주농협의 자립기반을 확실히 구축하고 건전결산을 통해 조합원들의 농가소득 제고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곽동열 조합장과 전 임직원은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곽동열 조합장의 포부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 합리적 경영 펼칠 것”

곽동열 무주농협협동조합장은 변화하는 시대에 합리적 경영을 통해 무주농협을 한 단계 상승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곽 조합장은 "지금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무주농협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더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경영을 하겠다며, 조합원과 고객이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과 애정으로 무주농협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곽 조합장은 "무주는 위시상 대한민국의 중심지로 구천동의 아름다운 계곡, 리조트 스키장, 양수발전소, 태권도공원 등 꿈과 희망이 가득한 곳으로 반딧불이 고장 청정지역 4계절 관광지로 아름다운 곳이다"고 강조했다.

곽 조합장은 "무주농협은 수입농산물 개방의 세계화 물결 속에서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벗어나기 위해 4개읍면(적상면, 무주읍, 안성면, 부남면)이 하나가 되었다"며 "4,300여 조합원과 임직원 모두는 화합 단결해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하고 농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곽 조합장은 "농업인 조합원 고객을 위한 각종업무 서비스와 우수농산물 생산에 전념해 양질의 농산물을 소비자 도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다"며 "무주농협은 도시와 농촌이 하나 되는 교량이 되어 농업인 조합원과 고객 여러분을 위한 조합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곽 조합장은 "조합원과 고객들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무주농협을 찾아 주시고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며 "무주농협의 핵심사업인 농산물 유통사업과 농업인 복지사업, 그리고 농업인 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동시 영농지원 발대식



사랑나눔 목욕봉사